

‘3선 도전’ 이성웅 대항마는 누구

■ 광양시장 입지자

광양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성웅 시장에 맞서 공직자 및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도전에 나선 형국이다.

도전 후보들은 8일 현재 김영재 전 인천대 교수, 김재휴 전 보성부군수, 김종대 전 전남도의원, 남기호 전남도의원, 서장원 전 국정원 부이사관, 서종식 변호사, 정현복 전 광양 부시장 등이다.

이성웅 시장은 전남대 공대 교수를 하다가 지난 2002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시 김옥현 시장의 재선을 막고 당선됐다. 그는 이어 2006년 역시 민주당 후보로서 열린우리당 서종식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구가 줄고 있는 전남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광양은 8년 동안 인구가 7천여 명이 늘었고 산단과 택지개발로 249개 기업, 3조9천여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특히 교육부문에 8년 동안 630억원을 투자, 광양에서 올해만 191명이 10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어 “국경을 초월한 경제기반 구축으로 앞으로 4년 내에 소득 5만불 시대를 열어 풍요하고 쾌적한, 창조적이면서 품격있는

■ 광양시장 입지자



(가나다 순) 김영재(61) 김재휴(59) 김종대(59) 남기호(52) 서장원(59) 서종식(51) 이성웅(68) 정현복(60)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자체 화물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1천만평으로 확대할 것이며 서울대 화물터 등 시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임야의 약용식물을 자원화해서 주민 소득증대의 기반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신소계 클러스터 구축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 ▲명상수련 헬스케어단지 조성 ▲주변 국가와 고속패러 운영 ▲생태관광 갯벌 탐방로 조성 ▲남해안 동서화합 경관길 조성 등을 광양 발전 구상으로 내놨다.

이 시장을 긴장하게 하는 후보 중 한 명은 정현복(60) 전 광양부시장. 그는 지난 1969년 광양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7년을 근무하다가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예산담당관, 공보관, 신안부군수, 광양부군수 등을 지낸 뒤 40년만인 지난

해 6월 퇴직했다. 퇴직 후 바로 선거를 준비해온 정 부시장은 오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준비된 시장후보’임을 내세우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그는 환경문제를 강조하며 시민·기업·환경이 하나 된 ‘글로벌 과관 경제도시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나아가 광양 실정에 맞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면서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 1만호 공급 ▲수질오염총량제 수용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교육환경개선 예산 5%로 증액 ▲유치원~고교까지 무료 급식 ▲여성일자리 1만개 제공 ▲노인 일자리 사업 30억원 투자 ▲민영영화관 유치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광양제철소의 후관공장, 광양컨테이너부두의 후방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행정 속도로는 기업들을 적

게 유치할 수 없다”면서 “안정적 행정이라는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공직자 출신의 김재휴 전 보성부군수도 꾸준한 지지도 상을 이끌어 이성웅 시장의 3선 도전 저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김 전 부군수는 지난 1976년 광양군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의 첫발을 내디딘 뒤 전남도청과 화순·보성군청 등을 오가며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김 전 부군수가 내세우는 것은 ‘투자유치 전문가’라는 점. 그는 전남도 서울사무소장과 투자유치과장, 광양자유무역 투자정책국장 등 투자유치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특히 “광양시가 포스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입주한 지 25년이란 세월이 지난데도 인구가 14만명에 불과한 반면 포항시는 인구가 50만명이나 된 것은 잘못된 투자행정 때문”이라며 “투자 유치, 환경도시

정현복·서종식 “공직·법조 경험 풍부” 강력 도전장

김재휴·남기호·김종대·서장원·강영채씨 경선 가세

조성, 주거환경 개선, 교육시설 개선 등을 통해 3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민주당 경선의 다크호스는 서종식 변호사.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이 시장에 석패했다.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 중 가장 젊은 서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농촌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고문변호사, 한국교통교육진흥회, 순천시 인사위원, 순천경찰청 집행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쌓았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 관리형 시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지역개발과 성장을 위한 공격적 시정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또 “선진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광양시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더 큰 광양’, ‘원더풀 광양’을 만들겠다”며 “정권과 중앙 인맥을 통해 광양시 예산의 불만을 6천억~7천억원으로 대폭 늘려 생활감 넘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기호 전남도 의원은 광양에서 기초의원 3선에 이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는 지난 1월26일 시장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지층을 확산시키고 있다.

남 의원은 “광양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학·관 협력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 광양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며 “광양읍권과 중마동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광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원 3선으로 광양 연구 프로듀서인 전남드래곤즈 단장 출신의 김종대 전 도의원은 의미 있는 정치인, 토종 광양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임을 강조하며 표발을 누리고 있다.

서장원 전 국정원 부이사관도 30년의 공직경험과 풍부한 중앙인맥을 통해 원도심에 대단위 아파트 유치, 광양항 배후단지에 수출전문기업 유치, 인구유입책 수립, 광양항 수출전진기지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영재 전 인천대 교수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가세했으나 김현옥 전 광양 시장은 아직 뚜렷한 활동 없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외 타당 주자로는 국민참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박형배 전 참여연대 상임대표와 민주노동당 유현주 광양시위원장, 한나라당 김광영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등이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충수기자 pyj4079@

■ 쟁점 & 변수

이성웅 시장은 지난 8년 동안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3선 도전의 명분이 충분하지는 후보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 시장은 지난 8년간 쌓아온 성과를 무리하라는 차원에서 4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자들은 단일한 시정을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광양 발전은 요원하다며 시장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후보는 이 시장의 시정 8년을 리더십과 정치적 부재,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과 당원의 평가가 후보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만은 없어 향후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경선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원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유윤근 의원의 의견이 공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우 의원은 공경 경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우 의원의 서종식 변호사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광양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① 유윤근 국회의원의 의중은 ② 동광양 vs 광양읍 격돌하나

따라서 우 의원이 서 변호사를 내놓고 지원할 경우 경선에서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초에는 지방의원 입지자 9명이 서 변호사 지지를 선언, 우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가 스스로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 의원이 서 변호사에 올인하는 모험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어서 향후 시민들에 대한 후보들의 지지층 확보 상황이 경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우 의원이 서 변호사를 내놓고 지원할 경우 이 시장의 무소속 출마나 정현복 전 광양부시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욱이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역할 분담을

약속하며 연대를 실행에 옮길 경우 광양정치권에는 한바탕 회오리가 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은 크게 도시적 성향이 큰 동광양과 농촌 특성이 나타나는 광양읍 두 지역으로 양분된다.

주요 후보 중 동광양 출신은 김재휴·서종식·정현복 후보 등. 반면, 김종대·이성웅 후보는 광양읍 출신으로 분류된다.

동광양이 광양읍보다 인구가 4만 이상이나 많지만 외지인들이 50% 이상 돼 걸림돌이 되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과 소지역주의 경향이 경선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충수기자 pyj4079@

■ 도의원 입지자

광양에서는 이번 6·2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인구가 많은 동광양 쪽에서 1명에서 2명으로 도의원 수가 늘어난 것이다.

1선거구(광양읍·옥룡면·봉곡면)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 남기호 전남도위원의 빈자리를 이용해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겸 정경화 전 광양상공인회 회장, 박희원 광양시 축구협회장 등이 경선 승리를 위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양오 서양산기(주) 대표가 순천중·고 동창들의 폭 넓은 후원 속에 새로운 지방정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또 국민참여당의 정희기 전 조선대 외래교수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2선거구(중마·골약동)는 현 도의원이 3선거구를 선택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 이 자리를 놓고 8월 현재까지 김양환 전 광양신문 발행인과 서욱기 광양 YMCA이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전 발행인은 광양

선거구 1곳 늘고 2곳은 ‘무주공산’ 3개 선거구에 자천타천 14명 경합

■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문양오(민·51)	서양산기(주) 대표
	박희원(민·44)	광양시 축구협회장
	이용재(민·47)	백제택시 대표
	정경화(민·52)	전 광양상공인회장
2	정희기(참·48)	전 조선대 외래교수
	김재우(민·62)	광양 YMCA 이사장
	이태호(민·40)	건우산업 대표
3	김재우(민·50)	전남도의원
	문정훈(민·39)	동광양 청년회의소 회장
	박봉욱(민·63)	전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욱(민·63)	전 광양시 총무국장
	유영근(민·39)	전 민주당 공보국장

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 이사는 전 광양시의원 경력이 있다. 여기에

이태호 건우산업 대표도 출마의사를 표명한 뒤 표발을 다지고 있다.

애초 출마가 거론되던 김종호 광양시 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광양시의원 출마로 선회했다.

3선거구(광양동·태인동·금호동·다담면·진상면·진월면·옥곡면)에서는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재우 전남도위원이 깃발을 내리고 도전자를 맞고 있다. 문정훈 동광양청년회의소 회장, 박봉욱 전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욱 전 광양시 총무국장, 유영근 전 민주당 전남도당 공보국장 등이 일단 도전장을 던진 형국. 김재우 도의원은 이번엔 3선에 성공해 도의회 의장에 재도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충수기자 pyj4079@

G 주식회사 지티

각 시·군 대리점 모집
구례, 순천, 광양, 여수, 황산 제외

062-371-7095
무등산대 011-601-7701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오와 당신의 묘지를 누기 관리하겠습니까?

☎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